

이대호, 전반기 시애틀 '최고 신인'

김현수 '출루머신' 오승환 '압도적 셋업맨'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이 각 팀의 전반기 결산에서도 부각됐다.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팀 내 최고 신인으로 꼽혔고,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출루 머신'과 '압도적 셋업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전반기를 되돌아 보며 팀 별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교훈, 전반기 최고 투수·야수·신인을 꼽았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시애틀의 올해 전반기 최고 신인으로 이대호를 선정하면서 "이대호는 시애틀의 전반기 가장 큰 놀라움이다. 이제 아메리칸리그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며 소개했다.

리튼의 활약도 볼티모어의 잘된 점으로 뽑은 MLB.com은 볼티모어의 전반기 잘못된 점은 선발투수진이라고 평가하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LB.com은 볼티모어 전반기 최고 투수와 야수로 브라과 브리튼, JJ.하더를 선정하고 최고 신인으로는 볼렌 투수로 활약 중인 딜런 번디를 뽑았다.

세인트루이스의 잘된 점으로 맷 캔터와 알레드미스 디아스의 맹타를 언급한 MLB.com은 "오승환은 압도적인 셋업맨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데뷔 첫 시즌에 마무리 투수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진 탓에 지난 2일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미네소타의 잘못된 점 중 하나로 언급됐다.

MLB.com은 32승56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미네소타에 대해 "마무리 투수 글렌 퍼킨스, 에이스 필 휴즈, 미구엘 사노, 트레브 플루프 등 주전들의 출루율이 잘못된 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최고 유망주였던 호세 베리오스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뒤 트리플A에 간 것을 언급한 MLB.com은 "박병호는 뜨겁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슬럼프에 빠졌고, 결국 지난 2일 트리플A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골프 올림픽 퇴출 경고

토마스 바흐(6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16리우올림픽 남자골프에 톱랭커들이 대거 불참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골프의 올림픽 퇴출 가능성을 경고했다.

바흐 위원장은 14일(한국시간) AP통신 등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톱클래스 남자 선수들의 불참은 골프의 미래를 평가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될 것이다"며 중요 선수 참가 여부를 올림픽 종목 평가 기준의 한 가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카 바이러스 우려로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서지 않는 또다른 요인들이 골프계에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우올림픽 골프에는 여자의 경우 상위권 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하지만 남자의 경우 상위권 1~4위를 포함해 중요 선수 20명이 출전을 포기했다.

세계랭킹 1위인 제이슨 데이(29·호주)를 비롯해 더스틴 존슨(32), 조던 스피스(23·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27·북아일랜드) 등 1~4위가 지카 우려 등을 내세워 출전을 포기했다.

골프는 지난 2013년 럭비와 함께 2016리우올림픽과 2020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승인됐다.

/김민근기자

전북 K-스포츠클럽,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선정

전북 K-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 생활체육 활성화와 붐 조성을 위해 공모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전북 K-스포츠클럽은 앞으로 보육원과 소년원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요가, 수영, 축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관내 보육원과 소년원 등 소외계층 시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부터 주2회, 매월 8회, 12월까지 진행된다.

전북 K-스포츠클럽 이대원회장은 "지역민의 체육복지는 물론 보육원과 소년원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높여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체육회 찾아가는 재능기부 사업 인기

도민건강증진·학교체육활성화 도모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능기부 사업이 도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민건강증진과 종목 홍보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재능기부사업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며 노력하는 청소년들과 몸이 불편해 상대적으로 체육활동이 저조한 장애인 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사격,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정구, 궁도, 수영, 태권도, 컬링 등 8종목을 12회에 걸쳐 약 800여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금년에는 컬링, 씨름, 육상, 태권도, 체조 등 5종목을 6회에 걸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전주시에의 조춘초는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 태권도 씨름, 체조 3종목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춘초등학교의 전효운 교장은 "학생들이 선수들을 직접 맞대면해 배우고, 체험하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 하고 있다"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 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사업이 활발히 시행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체육회 최영원 스포츠진흥처장은 "재능기부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재능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 좋다"며 "보다 많은 종목을 많은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능기부 사업이 도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에는 컬링, 씨름, 육상, 태권도, 체조 등 5종목을 6회에 걸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리우올림픽 축구 황의조 등 4명 예비엔트리에

황의조(24·성남), 이창근(23·수원FC), 이광혁(21·포항), 김민태(23·베갈랴 센다이) 등 4명이 2016 리우올림픽 축구 예비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축구협회는 리우올림픽 본선 참가를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할 전체 35명의 엔트리를 14일 확정, 발표했다. 최종엔트리와 예비엔트리가 포함된 명단이다.

리우올림픽 축구 종목 최종엔트리는 18명이다. 하지만 현지시간으로 8월3일까지는 FIFA에 제출한 35명 명단 내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조별리그 1차전은 8월4일 막이 오른다.

대회 시작 이후에도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예비엔트리로 제출한 4명에 한해서만 교체가 가능하다.

예비엔트리에선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이름을 올렸다. 황의조는 23세 연령 제한을 초과해 외일드카드 대체자이다. 손흥민(24·토트넘), 석현준(25·포르투), 장현수(25·광저우)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투입될 수 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광혁과 김민태가 이름을 올렸다. 대회기간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과 축구협회가 협의해 대체 선수를 브라질로 불러들일 수 있다.

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18일 소집과 동시에 브라질로 출국한다.

/김민근기자

태권도원

우대한 체·인·지의 시작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